

## “原則,, 雜想



安 秀 桔

〈서울대工大교수 · 전자공학〉

英語에 Principles of conduct라는 말이 있다. 인생을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산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a man of high principle라고 하면 臨機應變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이 있어서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저바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준하는 표현은 佛語나 獨逸語에도 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자기의 원리를 위해서 목숨을 草芥같이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원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어떠한 원리원칙을 갖고 있음이 남에게 뚜렷하게 들어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거창한 말을 꺼내기 전에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받을 경우가 있다. 특히 요사이 젊은 세대로 부터 그러한 항변을 받을 때가 많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의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집안의 욕실의 샤워를 쓰고나서 샤워쪽으로 물

(방향) 操從레버를 돌려 놓느냐 아니면 수도꼭지쪽에 돌려놓느냐 하는데에 있어서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수도꼭지에 돌려놓고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물을 틀다가 생각하지도 않던 샤워대거리에서 물이 나오고 게다가 세게 분출하면서 손이나, 소매나, 심지어는 걸어놓은 샤워대거리의 방향에 따라서는 옷까지 젖게 만들고 더군다나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서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샤워를 쓰고나서 “제자리”에 물건을 돌려놓지 않은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꾸짖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의 다양성의 시대에서는 원칙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다. 水道레버의 위치에 무슨 원칙이 있느냐고 반박을 받게 되고 겨울에 샤워쪽으로 물길이 돌아가 있을 리가 없지않느냐고 핀잔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핀잔 자체도 역시 하나의 원칙(겨울에 수도꼭지 물길이 샤워로 가 있을 리가 없다는)을 그어 놓고 있음을 보면 원칙이란 여기저기에서 자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되돌려 놓지 않았다고 말을 듣는 수가 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한 다음에 1층에 돌려놓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원칙이 있는 이유는 1층은 출입구가 있는 공통의 층계이기 때문에 그 층에서 엘리베이터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가 다른 어느 계층에서 보다 많고 그곳에다 엘리베이터를 보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긴 눈으로 볼때 결국 전체적으로 시간절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원칙을 분류하면 그것이 없으면 당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손해가 나는 그러한 눈에 빠히 보여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자명한 것과 상술한 바 엘리베이터의 경우와 같이 눈앞에 지장은 없지만 결국은 있는 것이 나온 그러한 원칙 다시 말해 처음부터 그 필요성이 자명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지혜가 터득한 고도의 지혜로서 얻은 원칙이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인위적으로 다른 층에 두기로 정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전체를 위해서 가장 시간낭비가 적은 해결방법으로 1층에 귀환시켜 놓는 방법이 약정된 것이다.

프랑스 빠리의 지하철은 한 도시의 구석 구석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정평이 있는데 지하의 층마다 오르내리기 위해서 에스칼레이터는 24시간 작동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이 접근하면 적외선 감응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안돌고 있다.

에스칼레이터 이용시에는 걸지 않고 조용히 서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중에는 바빠서 서있는 이용객들을 추월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설물을 아끼는다는 뜻에 있어서 조용히 서있는 것이 좋겠지만 그곳에서나 서울지하철의 경우나 바쁜 사람을 위해서 다행한 일로서 에스칼레이터에서 걸지 말라거나 추월하지 말라는 원칙이 없다.

그 대신에 프랑스에서는 에스칼레이터를 탔을 때 추월객을 위해서 비추월객들은 우측손잡이를 잡고 우측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

기 때문에 모두가 오른편에 붙어 서 있다. 그래서 에스칼레이터 우측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없는 나라의 경우와 같이 급한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 式으로 右衝左突을 할 필요가 없다.

손잡이를 오른 손으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자연히 발생하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반대방향에 서기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完全히 人爲的인 規約으로 第三의 범주가 될 것이다. 지하철 등에서 먼저 내리고 나서 탄다는 원칙이 더 잘되면 좋겠다.

반면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원칙이 있어서 복잡할 경우도 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관객의 태도가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되풀이 되풀이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묘기를 보고 감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느새 말없이 과도한 國家主義를 심어놓고 나서 심판이건 관객이건 아나운서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면서 재나라 선수들에게만 좋게 말하고 응원을 하는 풍조가 휩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식은 구식이란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자는 國際體育行事の 原精神을 터득한 것이라면 좋지만 여전히 “우리 새끼들만 귀여워하기”는 마참가지인데 단지 “손님대대”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미움을 숨겨가면서 손님대접 잘 하는 관객들의 태도가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관객태도 경쟁에서 銀메달이나 金메달감이 될 정도의 외양은 되기에 자랑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너무 협소한 小兒病的인 원칙을 주입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단체로서의 인간의 본질로서의 귀환을 생각할 단계가 온것 같다. 원리원칙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지만 동물의 훈련과 같은 條件反射의인 것이어서는 안되고 개개인에서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다.